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8. 16.(금) 배포즉시 배포 2024. 8. 16.(금)

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에너지장관회의 참석

-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(Carbon-Free Energy) 기술 활용 및 협력 강조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최남호 2차관은 제14차 아시아·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에너지장관회의(8.15~16,페루 리마)에 참석하여 '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' 이라는 주제 아래 청정에너지 확대 및 APEC 역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금번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회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공감하고, 각 경제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. 또한, ❶ APEC 지역 전반의 에너지전환 촉진, ❷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 접근, ❸ APEC 역내 청정수소 개발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3가지 주제 세션에서는 21개*의 회원 경제체들(economies)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.

* 한국, 페루(의장국), 미국, 캐나다, 일본, 중국, 러시아, 대만 ,호주, 인니 등 21개 회원

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전환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,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 및 기술 활용 방안으로 재생뿐만 아니라 원전, 재생, 수소 등 각 국가 현실에 맞는 무탄소에너지(Carbon-free Energy)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계획을 공유하고, 차기회의의 에너지정책대화 주제로 「APEC 역내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(Carbon-free Energy) 기술을 활용 방안」을 제안하였다. 이에 대해 미국,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, 싱가폴, 러시아, 칠레, 파푸아뉴기니, 대만 등의 지지를 끌어냈다.

한편, 동 계기에 미국, 캐나다, 호주, 칠레, 인니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2025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 수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, 무탄소에너지(Carbon-Free Energy) 활용 필요성 및 정책 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

담당 부서	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경수 (044-203-5120)
		담당자	서기관	유재영 (044-203-512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